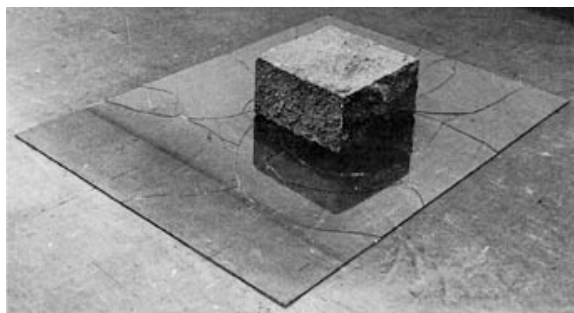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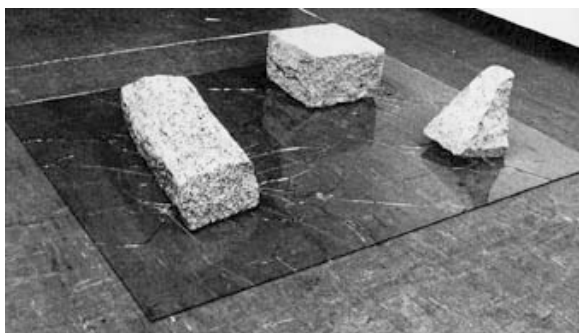


사물과 주체의 현상학적 만남 통해 세계의 본질에 접근

글 김찬동 전시기획자 · 본원 총괄협력팀장



이우환의 〈현상과 지각〉, 돌, 유리, 1968



재일 작가인 이우환은 일본 현대미술을 주도했던 미술그룹인 모노하(物派)에 속해 활동한 그룹의 이론적 기수였다. 그는 〈만남의 현상학적 서설〉 등의 비평문을 통해 서구미술 일변도로 진행되어 왔던 일본 미술에 대해 동양적 사고를 접목시켜 서구의 미학과 차별성을 구현해 내었다. 그의 작업은 사물과 지각(知覺)의 문제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서구 모더니즘의 형식주의나 주체와 대상의 이분법을 통한 사물로서의 작품의 본질을 규명하는 대신 사물과 주체가 현상학적 만남을 통해 작품을 이해하려는 입장을 가진다. 대상을 주체의 인식에 종속시키려는 서구의 합리주의적 사고방식에 대해 주체와 대상이 신체를 통한 현상학적 만남을 통해 완성되며, 작품 역시 사물이 신체를 통한 예기치 않은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주장이다. 그의 작업은 1970년대 초 · 중반 한국 화단의 모노크롬(단색조) 회화와 오브제 미술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바 있으며, 종래 한국 현대미술이 보여온 서구 양식적 차용의 차원을 넘어서는 서구 현대미술에 대한 인식론적 단서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현상과 지각〉이란 제목의 이 작품은 이우환의 초기 대표작 중 하나인데, 바닥에 깔린 대형 유리 위에 돌이 얹혀져 있다. 바닥에 떨어진 돌의 충격에 의해 유리에 생성된 심한 균열이 그 형식적 특성이다. 이런 정황은 관념적인 차원의 일상적인 돌과 유리와는 달리, 작가의 행위라는 신체를 통한 대상과의 직접적 만남이 만들어낸 예기치 않았던 정황이다. 유리나 돌이라는 물질로서의 관념을 넘어 사물의 현상에 대한 지각을 통해 세계와의 직접적인 만남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물과 주체, 사물과 사물의 만남 사이에 놓인 장소성과 관계의 향들을 통해 세계의 본질에 접하고자 하는 직관적 태도가 구현되어 있기도 하다. ✨